

기독교회의 IT 사역에 대한 관점 연구: 목회자를 중심으로

이면재*
백석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A Study on the Perspectives of IT Ministry in Christian Churches: Focusing on Pastors

MyounJae Lee*
Professor, Division of Computer Engineering, BaekSeok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디지털 시대 교회 사역의 변화 속에서 목회자들이 IT 기술을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SNS 및 홈페이지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의 효과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 교회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IT 인식, 활용 빈도, 인력 선발 기준, 소통 방식 등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목회자들은 인력 선발 시 기술적 전문성보다는 신앙적 태도와 사명감을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교회 규모에 따라 IT 활용 인식에 차이를 나타냈다. SNS는 예배 안내, 행사 홍보, 신앙 메시지 공유 등에서 활발히 사용되며 성도들과의 비공식적 소통 창구로 기능하는 반면, 홈페이지는 공식 정보 제공에 치중되어 양방향 소통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러한 결과는 디지털 도구가 단순한 정보 전달 수단을 넘어, 교회의 소통과 사역을 확장하는 전략적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목회자들의 IT 인식 전환과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디지털 사역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지원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교회가 기술과 영성을 조화롭게 접목하여 미래 지향적 사역을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주제어 : 기독교 사역, 목회자, 교회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IT활용,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how pastors perceive and utilize IT technologies within the changing ministry environment of the digital age. Focusing on the use of digital platforms such as social media (SNS) and church websites, the research aims to propose effective strategies for digital engagement in church ministry. A nationwide survey was conducted among pastors in Korea to examine their awareness of IT, usage frequency, criteria for staff recruitment, and methods of communication. The findings indicate that pastors tend to prioritize spiritual attitude and a sense of calling over technical expertise when selecting ministry staff. Larger churches showed a higher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IT capabilities. SNS was actively used for worship announcements, event promotion, and sharing of spiritual messages, functioning as an informal communication tool. In contrast, church websites were mainly used for official information delivery, with limited two-way interac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digital tools are not merely auxiliary but can serve as strategic assets for enhancing communication and expanding ministry. Therefore, pastors must shift their perception of IT and develop digital literacy through structured education and support systems. This study provides foundational data for designing future-oriented ministry models that integrate technology with spiritual leadership in a balanced and meaningful way.

Key Words : Christian ministry, pastors, church website, social media, IT utilization, digital communication

1. 서론

21세기 들어 급속히 진행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 팬데믹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확산은 한국 교회 사역 환경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 집이나 직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유튜브에 업로드된 설교나 예배 영상을 시청하거나, 줌이나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기술을 활용하여 예배를 드리거나,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과 같은 다양한 기술 기반의 사역이 빠르게 일상화되면서 교회는 전통적인 목회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기술적 수단의 도입에 머무르지 않고, 목회 철학과 교회의 전략적 운영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IT 인력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교회는 여전히 전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자원봉사자나 비전문 사역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교회의 디지털 사역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인식 개선과 더불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인력 운영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변화 흐름 속에서 다양한 학문적 논의가 축적되어 왔다. 예컨대 디지털 시대를 ‘네트워크 사회’ 및 ‘개인의 시대’로 규정하며 교회의 목회 방향을 제시한 연구[1], 메타버스 플랫폼(로블록스, 제페토, 이프랜드 등)의 활용 현황을 검토하고 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역적 가능성을 탐색한 연구[2], 팬데믹 이후 온라인 사역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모색한 연구[3],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 교회의 전략을 제시한 연구[4]가 있다. 또한 주일학교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디지털 기반 대안을 제시한 연구[5],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을 강조하는 ‘올라인(All-Line)’ 교회 개념을 제시한 연구[6] 역시 주목할 만하다. 최근에는 메타버스를 교회 사역에 접목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예배와 선교 현장에서 메타버스 적용 가능성을 탐구한 연구[8][12-15], 교회 조직 내 메타버스 운영과 관리 체계를 다룬 사례 연구[9]가 대표적이다. 또한 IT 기반 선교 전략 역시 구체화되고 있는데, 디지털 선교 경험을 공유한 ITMC 미션 컨퍼런스[10]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협업형 선교 전략을 제시한 IT 선교 포럼[11]이 그 흐름을 잘 보여준다. 이는 한국 교회가 디지털 기술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사역 및 선교에서 더욱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모색해야 함을 의미한다.

아울러, 교회의 디지털 사역 환경을 인적 자원 측면에

서 분석하고 IT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한 연구[16], 교회의 규모, IT 인력 수, 예산, 전공 여부, 사례비 지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실증적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현실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한 연구[17]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신학적 논의나 기술 활용에 관한 일반적 방향 제시에 집중된 경우가 많으며, 실제 목회 현장에서 목회자들이 IT 사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분석은 부족할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30개 교회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IT 사역에 관한 관점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IT 인력 선발 기준, SNS와 홈페이지의 사용 빈도 및 목적, 그리고 이를 통한 성도들과의 소통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교회의 IT 사역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신앙적 사명과 기술적 전문성이 균형을 이루는 IT 사역 모델을 제안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한국 교회의 목회자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총 30개 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목회자의 IT 사역에 대한 인식과 실태 조사 결과를 분석하며, 4장에서는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발전 방향을 논한다. 그리고 마지막 제5장에서는 결론을 도출하고 추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2. 본론

한국 교회는 지난 수십 년간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성장과 위기를 동시에 경험해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은 교회의 전통적인 예배와 교육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도록 강제하였다. 현장 예배의 제약으로 인해 많은 교회가 온라인 예배와 유튜브 설교 영상, 실시간 스트리밍, 디지털 헌금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사역을 도입하였으며, 이는 교회의 사역 구조 전반을 디지털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목회자의 역할은 단순한 영적 지도자를 넘어 디지털 목회 리더(digital pastoral leader)로 확장되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동시에, 교회가 기술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목회적 관점에서 해석·적용할 수 있도록 이끄는 핵심적 위치에 있다. 다시 말해, 목회자는 교회 내에서 디지털 사역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책임을 지닌다. 따라서 목회자의 인식

과 태도는 교회의 IT 사역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한국 교회의 IT 사역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 목회자의 태도와 리더십이다. 목회자가 디지털 사역을 단순한 기술적 보조 수단이 아니라 목회의 본질을 확장하는 도구로 이해할 때, 교회는 시대적 요구에 맞는 사역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목회자의 중요성은 디지털 사역의 역할측면에서도 강조된다. 첫째는 신학적 해석자 역할이다. 디지털 사역이 단순한 도구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신학적 의미를 지닐 수 있도록 해석하는 역할이다. 둘째는 전략적 리더이다. 교회 IT 인력 선발, 예산 배분, 사역 방향 설정 등 조직 운영 전반에 걸친 의사결정의 책임자이다. 세 번째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이다. 디지털 사역 속에서도 복음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을 지켜내는 신앙적 리더십을 발휘한다.

따라서 교회가 디지털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IT에 대한 이해와 학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며, 동시에 교회 공동체가 이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 교회의 목회자는 단순히 예배를 인도하는 역할을 넘어, 교회의 영적 지도자이자 공동체 운영의 책임자로서 다차원적인 사역을 수행한다.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영적 지도와 말씀 선포 사역이다. 목회자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말씀 선포와 성례전 집례를 통해 성도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것이다[18]. 주일 설교와 주중 성경공부, 기도회 인도 등을 통해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돕는다. 이는 교회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공동체의 영성을 강화하는 중심적인 사역이다[19].

둘째, 목양(Pastoral Care)과 상담사역이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삶을 돌보고, 신앙적·정서적·가정적 문제를 상담하는 역할을 맡는다. 병상 심방, 위기 상담, 가정 문제 지원 등은 목회자의 중요한 책임으로, 이를 통해 성도 개인의 신앙과 삶이 조화를 이루도록 돕는다[18]. 목회자는 단순한 강단 설교자 이상으로 성도들의 일상에 깊이 동행한다.

셋째 심방이다. 가정을 방문하여 가정예배를 드리거나 병원을 찾아 병상 심방을 한다. 특히 한국 교회는 질병이나 장례 시 목회자의 심방과 기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2]. 이외에도 개인 상담이 있다.

넷째, 목회자는 교육과 다음 세대 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다. 교회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 주일학교, 청년부, 장년 교육 등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한 기독교 교육을

담당한다. 이는 신앙 전수와 가치관 형성을 목표로[20],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를 대상으로 성경공부[3]와 청년부 모임, 장년 교육, 성경공부반등을 운영한다.

다섯번째, 목회자는 교회의 운영 책임자로서, 예산 관리, 인사, 교회 비전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장로·집사 등 평신도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교회를 조직적으로 이끌고, 외부 사회와의 관계에서도 교회의 대표자로 활동한다[19][21].

여섯 번째 선교와 사회 참여의 책임이 있다. 해외 선교사 파송, 지역 봉사 활동, 사회적 약자 돌봄 등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교회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한다[20].

일곱 번째,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사역을 준비해야 한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과 IT 발전으로 인해 목회자의 역할이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다. 온라인 예배 인도, SNS와 유튜브를 통한 복음 전파, 교회 홈페이지 관리 및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은 목회자의 새로운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22][23]. 이 과정에서 목회자는 영적 지도자이자 디지털 리더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유튜브 라이브, 줌(Zoom) 등을 활용한 온라인 예배를 진행[5]하거나, 카카오톡, 밴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활용한 SNS 목회 활동과 교회 홈페이지 및 앱을 운영하는 책임을 갖는다[6]. 또한, 설교 클럽, 목상 영상, 성경 강좌 등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 성도들뿐 아니라 비신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한다[7]. 위에서 언급한 목회자의 7가지 역할 모두 디지털 사역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목회자의 디지털 사역에 대한 발전적인 인식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발전시키는데 필수적인 조건이 될 수 있다.

3. 목회자의 IT 사역에 대한 인식

3.1 설문 조사

본 조사는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대한민국 내 개신교회의 목회자의 IT 사역에 대한 인식과 운영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우선, 기초적인 정보 수집을 통해 교회의 규모를 분류하고, 목회자의 성별 및 연령 등을 기반으로 응답자의 배경을 파악하였다. 조사 설계는 이러한 배경 변수들을 활용하여 교차분석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16,17].

특히 향후 교회 IT 사역의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

하기 위해, 교회 규모에 따른 목회자의 IT 사역과 인식과 활용 정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과 지원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구조로 본 조사를 구성하였다.

〈Table 1〉[16,17]은 이번 설문에 참여한 교회들의 목회자 성별, 연령대, 그리고 주일예배 평균 출석 인원인원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정리한 것이다. 설문은 2025년 5월 말부터 6월 초 사이에 진행되었으며, 총 30명의 목회자가 응답에 참여하였다. 단, 일부 문항에는 응답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음을 함께 밝혀둔다. 남성이 23명이며 여성은 7명, 연령대는 30대와 40대가 중심이다. 출석 성도가 20명에서 1000명 사이의 교회 목회자 인원이 25명이었다 [16,17].

〈Table 1〉 Overview of Survey Participants

Category	Sub Category	number of people	Percentage (%)
Gender	Male	23	76.7%
	Female	7	23.3%
Age	30	6	20.0%
	40	12	40.0%
	50	11	36.7%
	60	1	3.3%
Church Attendance	0-19	3	10.0%
	20-99	10	33.3%
	100-299	9	30.0%
	300-1000	6	20.0%
	1000-	2	6.7%

3.2 분석

본 연구에서는 IT 사역에 대한 인식과 IT 사역자에게 요구되는 역량, IT 사역에 대한 어려운 점과 SNS나 교회 홈페이지 접속 주기와 접속 목표 등으로 분석한다.

〈Table 2〉는 IT 사역자를 선발할 때 어떤 역량을 주로 고려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다중 선택을 수행한 결과이다.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역량은 책임감과 성실함(24.4%)과 '예배에 대한 이해와 감각'(24.4%)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회 IT 사역자가 단순히 기술적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넘어, 신앙 공동체의 사역적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고 성실하게 임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다음으로는 '기술적 전문성'(16.7%), '신앙과 사명의식'(15.6%)이 비슷한 수준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IT 사역자에게 기술적 능력이 여전히 중요한 요건이지만, 교회 현장에서는 신앙적 정체성과 사명 의식이 기술적 역량 못지않게 중요한 기준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와의 소통 능력'(11.1%)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

하였으나, 여전히 교역자·성도·IT 담당자 간의 원활한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량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교회 IT 사역자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기술적 전문성만이 아니라 책임성과 성실성, 예배 이해, 신앙적 태도, 공동체 소통 능력 등 다차원적이며 균형 잡힌 특성을 포함한다. 이는 교회 IT 사역이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 신앙 공동체의 예배와 사역을 지원하는 사명적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Table 2〉 Key Competencies Considered When Selecting IT Ministry Worker

Competency	Frequency	Percentage (%)
Responsibility and Diligence	22	24.4%
Understanding and Sensibility for Worship	22	24.4%
Technical Expertise	15	16.7%
Faith and Sense of Mission	14	15.6%
Ability to Communicate within the Community	10	11.1%

〈Table 3〉은 교회 규모에 따른 IT 요구 역량을 비교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중소형 교회(20명-299명)에서는 '책임감과 성실함', '예배에 대한 이해와 감각', 그리고 '기술적 전문성'이 고르게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이는 중소형 교회일수록 IT 담당자가 다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태도적 성실성과 예배 맥락의 이해뿐 아니라 일정 수준의 기술적 역량도 동시에 요구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대형 교회(1000명 이상)에서는 '예배에 대한 이해와 감각'과 '책임감과 성실함'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기술적 전문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형 교회에서는 기술적 업무가 분업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해 수행되기 때문에, IT 사역자에게는 기술보다 예배 중심적 감각과 사역적 태도가 더 강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소형 교회(20명 이하)에서는 응답 수가 제한적이었으나, '책임감과 성실함'이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규모 교회일수록 기술적 인프라보다는 담당자의 성실성 및 신뢰성이 사역 운영의 핵심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중대형 교회(300명-999명)에서는 응답이 비교적 적었으나, 전반적으로 모든 역량이 고르게 분포하여 특정 역량이 두드러지게 강조되지 않았다. 이는 이 규모의 교회에서는 IT 사역자에게 요구되는 조건이 상대적으로 균형 있게 분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교회 규모에 따라 IT 사역자

에게 요구되는 역량의 우선순위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소규모 교회에서는 성실성과 책임감이, 중소형 교회에서는 기술적 전문성과 다기능적 태도가, 대형 교회에서는 예배 감각과 사역적 태도가 더욱 강조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교회의 조직 규모와 운영 체계가 IT 사역자에 대한 기대 역량의 구조적 차이를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Table 3〉 Comparison of IT Competency Requirements by Church Size

Competence	1-19	20-99	100-299	300-999	1000-
Responsibility	3	7	6	1	5
Understanding of Worship	2	8	6	1	5
Technical Expertise	1	7	5	0	2
Faith & Mission	1	4	6	1	2
Communication	0	3	3	1	3
Collaboration	2	2	2	0	1

〈Table 4〉는 목회자의 IT 사역에 대한 중요도 인식을 조사한 결과이다. 항목은 ‘다소 중요하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로 구분된다. ‘다소 중요하다’는 예배의 보조역할로, 중요하다는 예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예배의 핵심요소로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응답 결과, 교회 IT 사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다수(62.1%)는 IT 사역을 원활한 예배와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였다. 이는 교회 내 IT가 단순한 보조적 기능을 넘어, 예배의 안정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핵심적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34.5%의 응답자는 IT 사역을 예배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간주하였다. 이는 IT 사역이 더 이상 기술 지원 차원을 넘어, 예배 경험의 본질적 일부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온라인 예배, 실시간 스트리밍, 디지털 소통이 확산되는 시대적 맥락에서, IT는 예배 참여와 영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이해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단 3.4%의 응답자만이 IT 사역을 ‘어느 정도 중요하다 - 보완적 역할’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소수의 교회만이 여전히 IT를 보조적 기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전반적으로는 IT 사역의 위상이 과거보다 크게 제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IT 사역이 교회 운영에서 단순한 기술적 지원을 넘어, 예배와 사역의 본질적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향후 교회가 IT 사역을 전략적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Table 4〉 Results of Perception on the Importance of IT Ministry

Level	Frequency	Percentage (%)
Somewhat Important	1	3.4%
Important	18	62.1%
Very Important	10	34.5%

〈Table 5〉는 교회 크기에 따른 IT 사역에 대한 중요도를 비교한 결과이다. 비교 결과, ‘매우 중요하다 - 예배의 핵심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주로 20-99명 규모 교회(60.0%)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100-299명 및 1000명 이상의 대형 교회에서도 각각 20.0%, 40%씩 분포하였다. 반면, ‘어느 정도 중요하다-보완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20-99명 규모 교회에서만 10.0%로 나타나, 소규모 교회일수록 IT 사역을 핵심보다는 보조적 역할로 인식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또한 ‘중요하다 - 원활한 예배와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다’라는 응답은 100-299명 규모 교회에서 가장 높은 비율(77%)을 보였으며, 그 외 1000명 이상, 20-99명, 20명 이하, 300-1000명 교회에서도 고르게 분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회 규모에 따라 IT 사역의 중요성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중형 교회(100-299명)에서는 예배와 운영의 필수적 요소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Table 5〉 Comparison of the Importance of IT Ministry by Church Size

Church Size	Somewhat Important	Important	Very Important
1-19	0 (0.0%)	3 (100%)	0 (0.0%)
20-99	1 (10%)	3 (30%)	6 (60.0%)
100-299	0 (0.0%)	7 (77%)	2 (23.0%)
300-999	0 (0.0%)	2 (100%)	0 (0.0%)
Over 1000	0 (0.0%)	3 (60%)	2 (40.0%)

〈Table 6〉은 IT 사역에 대한 목회자의 인식에 대해 다중으로 선택한 설문 결과이다. 항목은 ‘예배와 사역에서 있어서 핵심영역이다’, ‘갈수록 IT 사역에 대한 투자와 기술이 증가되고 있다’, ‘자원봉사에만 의존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인식에 비해 중요성이 과소평가되고 있다’, ‘다른 사역에 비해 소통과 이해가 어렵다’로 구성되었다. 응답 결과, ‘예배와 사역의 질을 높이는 핵심 영역이다’라는 항목이 33.3%(22회)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는 IT 사역이 단순한 보조 기능을 넘어 예배와 사역의 본질적 질적 향상에 기여한다고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점점 더 전문성과 투자가 필요한 사역이다'라는 응답이 31.8%(21회)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교회 내 IT 사역이 점차 복잡성과 전문성을 요구하게 됨을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인식에 비해 중요성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응답이 19.7%(13회)로 나타나, 교인들이 IT 사역의 실제적 중요성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한편, '자원봉사에만 의존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응답도 13.6%(9회)를 차지하여, 현재의 IT 사역 구조가 단순 자원봉사만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음을 드러내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역에 비해 소통과 이해가 어렵다'는 응답은 1.5%(1회)로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였으나, 일부 교인들이 IT 사역을 타 사역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목회자들은 IT 사역을 교회의 본질적 사역과 긴밀히 연결된 핵심 영역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전문 인력과 재정적 투자,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향후 교회 IT 사역이 단순한 기술 지원 차원을 넘어, 교회 사역 전반의 질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과제로 발전해야 함을 시사한다.

<Table 6> Pastors' Perception of IT Ministry

Opinion	Frequency	Percentage (%)
A core area	22	33.3
Increasing expertise and investment	21	31.8
Undervalued	13	19.7
Too burdensome to rely solely on volunteers	9	13.6
Difficult in terms of communication	1	1.5

<Table 7>은 IT 사역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분석 결과,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인 항목은 '기술적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전체의 34.5%(10회)를 차지하였다. 이는 목회자들이 IT 사역의 구체적 기술적 측면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이해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예산 편성의 한계'가 각각 27.6%(8회)로 동일한 비율을 나타냈다. 이는 IT 사역이 교회 운영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의 확보와 재정적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적 제약을 반영한다. 또한 '사역자간의 역할 조정 및 갈등'이 10.3%(3회)로 나타나, IT 사

역이 교회 내 다른 사역과의 역할 배분이나 협력 과정에서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IT 사역이 단순한 기술 지원 차원을 넘어, 조직 내 역할 구조와 협력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목회자들은 IT 사역을 수행함에 있어 기술적 전문성, 인적 자원, 재정적 지원, 그리고 조직 내 협력 구조 등 다차원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교회 IT 사역의 발전을 위해 단순한 기술적 해결책뿐 아니라, 조직적·재정적·교육적 차원의 종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able 7> Difficulties in IT ministry

Opinion	Frequency	Percentage (%)
Lack of understanding of technical matters	10	34.5
Difficulty in securing skilled personnel	8	27.6
Limitations in budget allocation	8	27.6
Role adjustment and conflicts among ministers	3	10.3

<Table 8>은 교회 크기에 따른 IT 사역의 어려움점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IT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은 주로 중소 규모(20-99명)의 사역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60.0%), 반대로 소규모(0-19명)와 일부 대규모(300-999명) 집단에서는 거의 보고되지 않았다. 이는 IT 사역의 복잡성이 특정 규모에서 명확히 인식되기 시작하는 시점과 맞물린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역할 조정의 갈등'은 300-999명 구간에서 50.0%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이는 조직 내 분업화 및 기능 분산이 본격화되면서 발생하는 내부 조정 문제를 반영한다. 흥미롭게도 해당 항목은 0-299명 구간에서는 거의 문제되지 않았다.

'예산의 제약'은 대부분의 구간에서 고르게 나타났으나, 300-999명 구간에서 50.0%로 상대적으로 높게 보고되었다. 이는 중규모 이상의 사역일수록 IT 인프라 확장 및 유지에 있어 자금 운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숙련 인력 확보의 어려움'은 0-19명 구간에서 66.7%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이는 소규모 사역이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300-999명 구간에서는 해당 문제가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0.0%). 이와 같은 분석은 IT 사역의 규모별 특성과 그에 따른 과제 유형을 분명히 보여주며, 사역 규모에 따라 맞춤형 지원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able 8> Comparison of IT Ministry Challenges by Church Size

Church Size	Knowledge	Role adjustment	Budget	Skilled person
0-19	0 (0.0%)	0 (0.0%)	1 (33.3%)	2 (66.7%)
20-99	6 (60.0%)	1 (10.0%)	2 (20.0%)	1 (10.0%)
100-299	2 (22.2%)	2 (20.0%)	3 (33.3%)	4 (44.4%)
300-999	0 (0.0%)	1 (50.0%)	1 (50.0%)	0 (0.0%)
1000	2 (40.0%)	1 (20.0%)	1 (20.0%)	1 (20.0%)

<Table 9>는 IT 활용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교회 홈페이지와 SNS 운영 여부에 대한 설문 응답을 분석한 것이다. 각 운영 유형은 SNS Only(교회 SNS만 운영), Website Only(홈페이지만 운영), Both(홈페이지와 교회 SNS 모두 운영), Website&Personal SNS,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높은 비율(41.4%)이 '교회 홈페이지만 운영하고 SNS는 운영하지 않는다(Website Only)'고 응답하였다. 이는 여전히 전통적인 형태의 온라인 운영, 즉 공식 홈페이지 중심의 정보 전달 방식이 주요한 흐름임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홈페이지와 개인 SNS를 함께 운영한다(Website & Personal SNS)'는 응답이 31%로 나타났다. 이는 공식적인 교회 홈페이지 운영과 함께 목회자나 구성원의 개인 SNS를 병행하여 공식 소통과 개인적 신앙 콘텐츠 확산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한편, 'SNS만 운영한다(SNS Only)'와 '홈페이지와 교회 SNS를 모두 운영한다(Both)'는 각각 13.8%로 동일한 비율을 보였다. 전자는 주로 규모가 작거나 젊은 세대 중심의 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향으로, 운영 효율성과 접근성을 증시하는 특징이 있다. 반면, 후자는 정보 제공(홈페이지)과 소통 강화(SNS)의 장점을 결합한 통합적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활용하는 교회로 해석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 온라인 운영 방식(Website Only 및 Website & Personal SNS, 교회 홈페이지와 SNS 총 86.2%)이 여전히 우세하다. 이것은 SNS만 이용하는 경우의 13.8%보다 교회 홈페이지만 운영하는 경우가 41.4%로 높은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SNS만 운영(13.8%)하는 경우보다 웹페이지와 교회 SNS(13.8%)와 개인 SNS를 활용(31%)하는 경우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교회 홈페이지와 SNS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추세도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교회가 온라인 공간에서 공식성과 개방성, 정보 전달과 관계 형성 간의 균형을 모색하는 단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Table 9> Operation status of a website and social media

Status	Count	Percentage
Website only	12	41.40%
Website& Personal SNS	9	31.00%
SNS only	4	13.80%
Website & SNS	4	13.80%

<Table 10>은 교회 재적 성도 수에 따라 홈페이지와 SNS 운영 여부를 비교한 표이다.

첫째, 대형 교회(재적 성도 1000명 이상)의 경우, '교회 홈페이지만 운영'(40%)과 '교회 홈페이지 및 목회자 개인 SNS 병행 운영'(40%)이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대형 교회가 조직 내에 전담 IT 인력 및 미디어 담당 사역자를 보유하고, 공식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하되, 목회자의 개인 SNS를 보조 채널로 활용하는 복합적 홍보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양상은 교회의 규모가 커질수록 공식-비공식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병존 체계가 강화되는 경향과 일치한다. 중대형 교회(300~1000명)는 '홈페이지만 있음'(50%)과 '홈페이지·SNS 병행'(50%)이 동일하게 분포하였다. 이는 일정 수준의 기술적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여, 교회가 정보 전달 중심의 홈페이지 운영과 개별 목회자의 SNS 소통을 병행하는 이중 구조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중대형 교회는 규모 대비 효율적인 콘텐츠 분산형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중형 교회(100~299명)의 경우 '홈페이지만 운영'이 6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교회가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정보 제공을 수행하되, SNS를 통한 개별적 소통 활동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은 운영 인력의 부족, 기술적 접근성, 목회자의 미디어 활용 역량 제한 등 현실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소형 교회(20~99명)에서는 '목회자 개인 SNS 병행'이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공식적인 웹 인프라보다 목회자 개인 중심의 SNS 활용을 통한 교인과의 직접 소통이 핵심적인 미디어 전략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소형 교회는 재정적·인적 자원의 제약 속에서도 관계 중심적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20명 이하 교회에서는 '홈페이지 없음/SNS만 운영', '홈페이지만 있음', '홈페이지와 SNS 병행'이 각각 33.3%씩으로 균등하게 분포하였다. 이는 교회의 미디어 운영 방식이 체계화되지 않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담당 인력

및 기술 지원 부재로 인한 불안정한 운영 형태를 시사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교회 규모가 클수록 전통적인 홈페이지 중심 운영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소형 교회일수록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교회 규모에 따른 맞춤형 디지털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Table 10〉 Comparison of Website and Social Media Management According to Church Size

Size	SNS Only	Website Only	Both	WebSite&Personal SNS
Under 20	1 (33.3%)	1 (33.3%)	1 (33.3%)	0 (0.0%)
20-99	3 (30.0%)	2 (20.0%)	0 (0.0%)	5 (50.0%)
100-299	0 (0.0%)	6 (66.7%)	2 (22.2%)	1 (11.1%)
300-1000	0 (0.0%)	1 (50.0%)	0 (0.0%)	1 (50.0%)
1000 over	0 (0.0%)	2 (40.0%)	1 (20.0%)	2 (40.0%)

〈Table 11〉은 교회 홈페이지의 활용도 및 접근성을 파악하기 위해, 목회자들의 홈페이지 접속 빈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46.4%가 '주 1회 이상 접속(Frequently)'한다고 응답하여 정기적으로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월 1~2회 정도 접속(Occasionally)'은 21.4%, '특정 정보가 필요할 때만 접속(As Needed)'은 17.9%, '거의 접속하지 않음(Rarely)'은 14.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정기적 또는 필요시 교회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홈페이지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사역 도구로서 일정 수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여전히 약 32.2%는 자주 접속하지 않거나 필요한 경우에만 접속한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홈페이지 콘텐츠의 지속적인 개선과 사용자 친화적인 구조 개선이 요구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Table 11〉 Frequency of Website Access

Visit Frequency	Count	Percentage
Frequently (Weekly)	13	46.40%
Occasionally (Monthly)	6	21.40%
As Needed	5	17.90%
Rarely	4	14.30%

〈Table 12〉는 목회자의 교회 홈페이지 목적에 관해 다중 선택한 결과이다. 응답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인 30.0%가 '주보 및 공지사항'을 확인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교회 홈페이지가 주요 소식 전달의 통로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어서 '주일 설교 영상 및 설교문'이 15.0%, '교회 행사 및 일정 안내'가 10.0%를 차지하며, 예배 콘텐츠와 교회 일정 정보에 대한 관심도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도 '홈페이지 디자인(Website Design)', '접근성(Accessibility)', 'UI/UX' 항목이 각각 7.5%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사용자가 단순히 콘텐츠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의 구조적 품질과 사용자 경험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회 비전', '사명 선언문', '교회 연혁' 등 교회의 철학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콘텐츠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이는 일부 목회자들에게는 여전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교회 홈페이지는 정보 전달과 신앙 콘텐츠 제공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더 효과적인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서는 정기적 콘텐츠 업데이트와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개선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Table 12〉 Reasons for Visiting the Website

Response	Count	Percentage
Bulletins & Notices	12	30.00%
Sermon Videos	6	15.00%
Events & Schedule	4	10.00%
Website Design	3	7.50%
Accessibility	3	7.50%
User Interface (UI)	3	7.50%
Overall UX	3	7.50%
Member Board	1	2.50%
Bible Study Materials	1	2.50%
Meeting Minutes	1	2.50%
Church Vision	1	2.50%
Mission Statement	1	2.50%
Church History	1	2.50%

〈Table 13〉은 교회 홈페이지나 SNS를 통한 성도와 의 소통 현황을 보여준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55.2%)이 '소통하지 않는다(No communication)'고 응답하였다. 이는 디지털 매체를 통한 사역자-성도 간의 직접적인 소통이 아직 일반화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반면, '홈페이지만 가끔 들여다본다(Rare homepage visit)'는 24.1%, 'SNS나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하며 소통한다(Posts directly)'는 17.2%로 나타나, 일정 부분에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도들의 SNS에 들어가 직접 격려나

위로의 메시지를 남기는 적극적인 방식(Actively engages)을 실천하고 있다는 응답도 일부 존재했으며(3.4%), 이는 SNS를 통해 개인적 관계 형성을 시도하는 사례로 주목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수의 목회자들이 홈페이지나 SNS를 일방향적인 정보 전달 도구로 인식하고 있으며, 쌍방향 소통의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교회 IT 사역에서는 콘텐츠 제공을 넘어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요구된다.

〈Table 13〉 Interaction with Church Members via Website or Social Media

Communication	Count	Percentage
No communication	16	55.20%
Rare Homepage visit (~monthly)	7	24.10%
Posts directly on SNS or website	5	17.20%
Actively engages on members' SNS	1	3.40%

〈Table 14〉는 SNS 사용 목적에 대한 복수 응답 조사 결과이다. 조사 결과, 가장 높은 비율로 선택된 항목은 '설교 및 신앙 콘텐츠 전파(28.9%)'였다. 이는 다수의 목회자들이 SNS를 단순한 개인용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넘어, 신앙적 메시지 전달과 복음 콘텐츠 공유의 통로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어서 '교인과의 소통 및 목회적 상담(26.3%)'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SNS가 성도와의 관계 형성 및 목회적 돌봄을 위한 실질적인 창구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복음 전도 및 선교 목적(18.4%)'도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이는 SNS가 외부 사역 확장을 위한 도구로도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반면, '개인적인 일상 공유(10.5%)', '청년세대와의 관계 형성(10.5%)', '타교회 콘텐츠 탐색(2.6%)'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였다. 이는 일부 목회자들이 SNS의 비공식적 혹은 정보 탐색적 기능보다는, 공적 사역과 관련된 목적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이러한 분석은 목회자의 SNS 활용이 점차 사역적 목적 중심으로 구조화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설교 콘텐츠 확산과 성도와의 연결성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Table 14〉 Reasons for Using Social Media

Response	Count	Percentage
Preaching & Faith Content	11	28.90%
Communication & Pastoral Care	10	26.30%
Evangelism & Mission	7	18.40%
Personal Sharing	4	10.50%
Connecting with Youth	4	10.50%
Researching Other Churches	1	2.60%
Other	1	2.60%

4. 목회자들의 IT 인식 제고 및 디지털 플랫폼 활성화 방안

오늘날 디지털 시대 속에서 교회의 사역 환경은 점점 더 기술 의존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SNS와 교회 홈페이지는 단순한 보조 수단이 아닌 핵심적 사역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본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3장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목회자들의 IT 인식 제고 방안과 더불어 SNS 및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안한다.

4.1 목회자들의 IT 인식과 현실적 한계

오늘날 디지털 사역의 필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IT 활용에 있어 주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단순히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심리적·환경적 요인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1) 재정적 부담에 대한 우려

많은 교회, 특히 중소형 교회에서는 홈페이지 개편, 영상 장비 도입, SNS 콘텐츠 제작 등 IT 관련 투자가 '비본질적 지출'로 인식되기 쉽다. 이는 '영적인 사역'과 '기술적 수단'을 분리해 보는 인식에서 기인한다.

2) 전문 인력 부재 및 관리 부담

디지털 사역을 추진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IT 관리 능력이 필요하지만, 실제 교회 현장에서는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나 시스템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목회자 자신이 직접 운영하거나 감시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인해 추진 자체를 미루게 된다.

3) 사역의 우선순위에 대한 혼동

일부 목회자들은 디지털 플랫폼이 '사역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우려를 갖는다. 예를 들어, SNS를 통한 소통이 진정한 공동체적 교제를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온라인 예배가 현장 예배의 신앙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IT 도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4) 실효성에 대한 회의

과거에 홈페이지나 SNS를 운영했지만 기대한 효과를 얻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경우, 다시 시도하는 데 있어 회의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는 '해도 별 효과 없다'는 생각으로 이어져 디지털 사역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시킨다.

4.2 인식 개선을 위한 실제적 접근

이러한 요인들을 극복하고 목회자들의 IT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천적 전략이 요구된다.

1) 작은 성공 경험을 통한 인식 전환 유도

처음부터 큰 시스템을 구축하기보다는, 목회자가 직접 작성한 짧은 글 하나가 SNS에서 은혜로운 반응을 얻거나, 설교 영상을 통해 타 지역 성도가 연결되는 등 작은 성공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기술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디지털 사역의 가능성을 체험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2) 사역의 연장선으로서 IT 이해시키기

IT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도구이며, 디지털 공간도 목회의 현장임을 인식시키는 신학적·목회적 교육이 필요하다. 예컨대, SNS 공간을 '현대판 아레오바고'(17장)로 해석하는 방식은 기술에 대한 영적 의미를 부여하며 목회자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3) 관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외부 협력 활용

전문성을 갖춘 교인 또는 외부 디지털 전문가와의 협업 모델을 도입함으로써 목회자가 모든 것을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술은 사역의 동역자'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

4) 디지털 사역과 영성의 통합 교육 필요

신학교와 교단 차원에서 '디지털 사역'에 대한 목회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실제적인 사례 중심의 강의를 통해 목회자가 기술을 자신의 사역 언어로 받아들일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5) 목회자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도입

교단 차원에서 정기적인 IT 활용 세미나, SNS 운영 워크숍, 홈페이지 콘텐츠 기획 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목회자들이 디지털 도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6) 영성과 기술의 통합적 관점 강조

디지털 사역도 영적 사역의 연장선에 있음을 교육하며, IT 기술 활용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의 전략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7) 성공 사례 공유를 통한 인식 개선

SNS를 통해 소그룹 성장이 일어난 사례, 홈페이지를 통한 전도 효과 사례 등을 정리·공유함으로써 목회자들에게 실질적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8) SNS 활용 활성화

분석 결과 SNS는 성도들과의 비공식적, 개인적 소통에 유용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전략이 제안된다. 주간 묵상, 목회자의 짧은 메시지, 교회 소식 등을 매주 정기적으로 업로드함으로써 팔로워와의 지속적 연결을 유지한다. 댓글 참여 유도, 간증 나눔, 사진 공모 등 성도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콘텐츠를 기획함으로써 소통의 질을 높인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을 교회 성도층의 연령대에 맞게 병행하여 운영함으로써 접근성을 강화한다.

9) 홈페이지의 전략적 활용

홈페이지는 공식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이고 소통 중심의 플랫폼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설교 후기, 기도 제목 나눔, 소그룹 신청 등 참여 기반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성도들의 피드백을 수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피드백 기능 강화한다.

많은 성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홈페이지에 접근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모바일 UX/UI 개선을 통한 모바일 최적화 및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성도를 위한 다국어 지원과, 지역사회 행사 안내 등 외부와의 연결 창구로 활용한다.

5. 결론 및 추후 연구방향

5.1 결론

본 연구는 디지털 시대 교회 사역 환경의 변화 속에서, 목회자들이 IT 기술(특히 SNS와 홈페이지)을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목회자들은 인력 선발 시 신앙적 태도와 사명감을 증시하는 경향이 강하였으며, 이는 기술적 전문성보다 영적 자질을 우선하는 전통적 인식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교회의 규모가 커질수록 IT 활용의 전문성과 효율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으며, 이는 디지털 사역이 점차 전문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SNS는 교회 내외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비공식적 소통 창구로 널리 활용되었으며, 특히 주간 행사, 예배 안내, 신앙 메시지 공유 등의 목적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었다. 반면, 교회 홈페이지는 여전히 주로, 설교 영상, 예배 시간 안내 등 공식 정보 제공에 머무르고 있으며, 참여 유도나 양방향 소통 기능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는 목회자들의 IT 인식을 단순히 도입 여부 차원이 아닌, 사역 전략의 일부로 재구성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기술에 대한 두려움이나 회의감은 단기간 내에 극복되기 어려우나, 작은 성공 경험과 실제적인 교육, 협력적 운영 시스템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5.2 추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전국 단위의 설문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목회자들의 일반적 인식 경향을 분석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보완점과 후속 연구 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설문조사만으로는 목회자들의 내면적 동기가 실질적 고민을 충분히 담아내기 어렵다. 향후에는 심층 인터뷰(FGI, 사례연구 등)를 통해 목회자의 실제 경험과의 사결정 과정을 더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회의 규모(대형, 중소형), 위치(도시/농촌), 교단적 배경에 따라 IT 활용 방식과 인식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비교함으로써 보다 맞춤형 전략 제시가 가능할 것이다.

셋째, 목회자 중심의 관점만으로는 IT 활용의 실제 효

과를 완전히 평가하기 어렵다. SNS나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성도들의 만족도, 접근성, 신앙적 영향 등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신학교 및 목회자 훈련 기관에서 IT 활용 능력을 어떻게 신학적 사역과 통합하여 교육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커리큘럼 및 제도적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AI, 메타버스 등 차세대 기술에 대한 교회의 대응 연구이다. 미래에는 AI 설교 추천, 메타버스 예배, 챗봇 기반 상담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이 교회 사역에 접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대한 목회자의 인식, 신학적 기준, 실천 가능성을 다루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REFERENCES

- [1] Sung Bong Ha, Ministry Strategies for the Digital Era, Entrorium, 2018.
- [2] MyounJae Lee, "A Study on Development Strategie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Christian Churches in the Metaverse Platform", Journal of KIOTS, Vol.11, No.2, pp.47-54, 2025.
- [3] Kye Jae Kwang, "An Analysis of Digital Mission Fields' Ministry in 'With COVID-19'", Theology and Praxis Vol.79, No.72, pp.531-558, 2022.
- [4] Dong Hwan Kim, "Practical Ways to Help Korean Churches Possess an Ability to Discern the A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ology and Praxis Vol.69, No.69, pp.743-774, 2020.
- [5] Sung Hwan Park, "Preaching for Children by Using Smartphone in the Era of Phono-Sapiens", Journal of Evangelical Practical Theology, Vol.59, pp.173-207, 2021.
- [6] Seung Chan Lee, "A Study on the All-line Ministry Methodology of Korean Churches in the Pandemic Era - Focusing on the All-line Ministry of Chungsin Church",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Ph.D, 2021.
- [7] DongHyun Lee, "Church Informatiza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Church IT Infrastructure", Monthly Pastoral Ministry, 2012.2.
- [8] YongHee Lee, "Utilization of IT Technology in th era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to revitalize Christian Mission : Focused on Metaverse", The Korean Society of Mission Studies, No.65, pp.248-275, 2022.
- [9] HaeRoung Cho, Changes and Challenges in the Pastoral Structure of Missional Churches in the Metaverse Era: Focusing on the Application to the Korean Church, Mission and Theology, No.60, pp.311-343, 2023.

- [10] Hyun Mo Pyo, "Exploring Mission Strategies in the Digital Age Together", Korea Christian Press, 2023.7
- [11] JeeHee Lee, "The integration of IT, a key element of our era, with mission, the will of God, is essential", Christian Today, 2017.6.18.
- [12] Hyung Rak Kim, "A Study of Christian Metaverse Community and Worship", Theology and praxis, No.76, pp.41-66, 2021.
- [13] Taejin Kim, Ohbyung Kwon, and Jooyoung Kang, 'The Metaverse and the Christian Worldview', 38th Annual Conference of the Christian Worldview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pp.697-721, 2021.
- [14] Sung Hyuk Nam, "Exploring the Possibiliti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Metaverse as a Digital Mission Field",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Vol.54, No.2, pp.103-124, 2022.6.
- [15] Geonchun Park, Wonyoung Bong, "The Christian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Metaverse: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Metavers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22, No.7, pp.511-523, 2022.7.
- [16] MyounJae Lee, "A Study on the Development Direc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of IT in Christian Churches-Focusing on Human Resources", Journal of KIOTS, Vol.11, No.3, pp.113-112, 2025.
- [17] MyounJae Lee,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Digital Ministry through the Analysis of IT Infrastructure in Christian Churches", Journal of KIOTS, Vol.12, No.4, pp.11-20, 2025.
- [18] Young Sun Park, Ministry and Preaching, Seoul: Eunbo, 2012.
- [19] Chan Soo Lee, "The Present Situation and Tasks of Korean Church Ministry", Theology and Ministry, Vol.25, No.2, pp.45-68, 2016.
- [20] Un Yong Kim, The Direction of Korean Church Ministry, Seoul: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Publishing House, 2018.
- [21] Jae Moon Ko, Introduction to Pastoral Theology: Theory and Practice,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2022.
- [22] Hyung Geun Choi, "A Study on the Role of Pastors in the Digital Age", Christianity and Theology, Vol.34, No.1, pp.123-150, 2020.
- [23] Jung Hoon Han, "The Change of Pastoral Paradigm of Korean Church after COVID-19", Theology and Society, Vol.35, No.3, pp.89-112, 2021.

이 먼 재(MyounJae Lee)

[종신회원]



- 2009년 3월 ~ 현재 : 백석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 2020년 8월 :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

<관심분야>

사물인터넷, 게임, MPEG, 기독교 IT